FX Market Daily

2026-11-19

전일동향

외인 달러 선물 매도세에...1,333.70원에 마감

18일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 1,338.20(15:30 기준)에서 2.40원 하락한 1,335.80(07:00 기준)에 개장했다.
환율은 주간 거래에서 외국인의 달러 선물 매도세에 하방 압력 받으며 1,320원대까지 밀렸으나, 뉴욕장에서 글로벌 달러 강세에 반등하며 1,333.70원에 종가(07:00 기준)를 기록했다. 일간 장중 변동 폭은 7.4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 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833.18이다.

전일환율변동

구분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매매기준율)
달러	1335.80	1335.80	1328.40	1333.70	1331.10
엔화	837.33	837.62	832.80	833.18	-
유로화	1467.94	1468.35	1457.90	1460.02	-

* 시가/고가/저가/종가: 달러는 익일 06:00(美 서머타임 해제 시 익일 07:00) 기준, 엔화 및 유로화는 15:30 기준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37	-2.73	-6.98	-16.11
결제환율(수입)	-0.12	-1.54	-4.97	-12.79

* 해당월 최종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

* 당일 청약시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바,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https://www.ksure.or.kr/rh-fx/index.do) 확인

금일 전망

강달러에도 버티는 원화에...1,330원대 중심 등락 전망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0.95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종가(1,333.00, 15:30 기준) 대비 0.15원 하락한 1,331.90원에서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매파적 FOMC 의사록 공개에 따른 글로벌 강달러에도 불구하고 상방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10월 FOMC에서 12월 빅스텝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른 연준 긴축 기조 강화 기대는 글로벌 달러 강세와 위험회피 심리를 자극하며 환율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긴축 기대가 이미 시장에 상당 부분 선반영된 만큼 상단은 제한적일 전망이며, 국제유가와 미 장기 국채금리 하락이 원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여기에 반도체 수출 호조로 달러가 시기와 무관하게 역내로 많이 유입되고 있는 점 또한 환율 상단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327.33 ~ 1339.33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2643.56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0.15원↓
	■ 美 다우지수 : 50198.17, -561.25p(-1.11%)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85.44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1045 억원

※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